

광양여중, 43주년 맞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오월정신' 기리며

보훈지청 주관, '5·18광주민주화운동 창작연극' 관람 나서 '광주민주화운동' 모티브로 학생들의 뮤지컬 형식 창작극

광양여자중학교는 올해로 제43주년을 맞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앞두고, 관계기관과 함께 창작연극 등 다채로운 계기교육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0일, 교내 덕모관에서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전남 동부 보훈지청 주관 '5·18민주화운동 기념 창작 연극 공연'을 관람했다. 이번 공연은 당당한 시민인 학생들에게 공동체적 삶의 주인공을 자각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정신과 공동체 가치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으로 추진되었다. 전남 동부 보훈지청이 주관하고 극단쟁이

가 공연한 이 창작극은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과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났던 '광주민주화운동'을 모티브로 불의에 저항하고 사회 변화의 주체적 역할을 했던 학생들의 역할을 강조한 뮤지컬 형식의 창작극이다.

학생들은 공연 중간중간 극단 단원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열띤 분위기로 화답했다.

3학년 정00학생은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당시 학생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얼얼해졌다"며 "이분들 덕분에 제가 공부할

수 있고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 앞으로 더욱 사회문제에 관심 갖고 살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전라남도교육청 민주시민학교로 지정된 광양여중은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작은 시민 역량 키움' 주간으로 지정해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관 함양과 인성교육을 위한 민주시민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교과 수업시간 사회 참여 프로젝트 수업뿐만 아니라 손편지도 감사 표현하기, 존중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 캠페인 활동, 연극 공연 후 소감 나눔하기 등의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은 삶의 주인공으로 함께 성장하는 체함을 진행했다.

학교측은 5·18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다가올 6월 호국 보훈의 달과 학생독립운동 기



남일 등을 맞아 지속적인 계기교육과 민주시 민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역사·의식을 지닌 삶의 주인공으로 우뚝서게 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현근 기자

화순도서관, 초등학생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 화제



화순도서관은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16일 까지 전태초등학교와 도곡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나도 작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년 연속 '나도 작가' 프로그램 운영, 전태초·도곡초 학생 1인 1책 제작

이 프로그램은 '전남교육 2023'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에 발맞춰 2022년 최초로 진행하여 올해 2년째 운영하는 사업으로 학교와 연계와 독서인문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나도 작가' 프로그램은 백정에 동화작가를 전태초등학교, 도곡초등학교에 파견하여 12회 과정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이 자유주제로 1인 1책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학생은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게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나도

작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림책을 만들면서 글쓰기에 자신감이 생겨서 좋았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교육청화순도서관장은 "나도 작가 프로그램을 통해 첫 번째 책을 발간하는 학생들이 이번을 계기로 자신의 꿈을 이뤄가며 두 번째 세 번째 책을 발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올해 학교와 연계하여 '한 학기 한 권 읽기' 도서 지원, '그림책이랑 놀자', '독서·토론' 프로그램, '작가와와 만남', '고3 인문학' 등 다양한 독서인문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나주 남평초, '2023 남평가족 어울림 한마당'



나주 남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지난 9일 유아와 가족, 교원 200여명이 즐기는 '2023년 남평가족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어울림 한마당에서 유아와 가족들은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참여할 것을 선사하고

활기차고 열띤 응원과 함께 다양한 놀이한마당에 참여했다. 저울농구, 달리는 유람선, 파란 나라 빨강나라,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된 어울림 한마당에 참여함으로써 남평교육가족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팀과 홍팀으로 나뉜 유아와 가족들은 단체 줄다리기와 피라미드 탑 쌓기, 이어 달리기 등 박진감 넘치는 경기에 큰 호응을 보였다. 특히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유아와 가족들 이어달리기에서는 열띤 응원과 함성이 울려 퍼지고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서로를 격려했다.

나주=송준표기자

곡성중앙초, 학생·학부모·교사 하나되어 'BOOK 공감'

'후천적 손상 예방교육' 통해 장애발생 경각심 일깨워

곡성중앙초등학교에는 학생 12명, 학부모 4명, 교사 3명의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BOOK 공감' 동아리가 있다. 지난 4월에 조직되어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틈틈이 그림책 읽기 연습을 한 후 지난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아침 시간에 그림책 읽어주기를 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아침을 여는 그림책 읽어주기 'BOOK 공감' 회원들은 학생들에게 완성도 있는 책 읽기를 하기 위해 책 선정부터 신중하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책 읽는 방법도 그림책 지도사 김미숙

선생님의 지도로 열심히 연습하였다고 한다.

김영주 사서교사는 "바쁜 아침 활동 시간에 학생들이 모여서 연습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는 모습이 진지하면서도 대견하고 예쁘다"라며 동아리 학생들을 응원하는 말을 전했다. 그림책 읽어주기 첫날 동아리 회원들은 8시 30분에 도서관에 모여 준비를 하고 해당 교실로 책 읽기를 진행하였다. 동아리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곡성중앙초 학생들의 모습이 즐거워 보였다.

책 읽기가 끝나고 허00 학부모 회원은 "학생



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어 보람되고 다음 주는 518과 관련된 그림책을 준비해서 읽어주고 싶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곡성=양혜영기자

여수남초, 소동줄놀이 공연 선보여

여수남초등학교는 지난 10일 학교 운동장에서 전교생이 관람하는 가운데 5.6학년 소동줄놀이 공연을 선보였다. 제 57회 여수거북선 축제에 소동줄놀이 참가 예정이었으나, 우천 취소로 인하여 소동줄놀이 참여가 불발되었다. 그로 인한 학생들의 아쉬움과 염원으로 인해 소동줄놀이를 진행하였다.



소동줄놀이는 전통놀이를 각색하여 한산대첩 재현극과 댄스공연으로 진행했다. 한산대첩 재현극은 소동줄을 맨 학생들은 조선수군역할을 복을 치는 교사는 일본수군 역할을 맡아서 서로 전투를 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댄스공연은 소방차의 '어젯밤이야기', 르세라핌

'antifragile' 두곡으로 댄스무대를 선보였으며 이번 공연을 위해 학생들은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2주간 열심히 연습하였고, 땀과 노력의 결과를 선보였다.

여수=김현근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